

# 환경운동가들이 가려 뽑은 '우리 시대 최고의 생태도서'

책으로 펼쳐는 환경운동 ...

전국에서 활동중인 환경운동가 65인이 추천

《출판저널》은 생태위기의 현황을 널리 알리고,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모색해본다는 차원에서 '우리 시대 최고의 생태도서' 30권을 선정, 발표한다. 제277호 특집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도서선정의 특징은, 전국의 환경운동가를 선정위원으로 위촉한 점이다. 선정위원들이 추천해준 책은 총 129종으로, 이 가운데 3인 이상 추천한 30권을 '우리 시대 최고의 생태도서'로 선정했다.

다음에 '우리 시대 최고의 생태도서' 30권을 간략한 해제와 함께 소개한다. 편의상 소설·생태사상가 전기·교양 입문서·이론서 순으로 분류했으며, 분야별 배열은 간행연도순으로 했다. 참고로 5인 이상 추천받은 책들은 다음과 같다 (괄호는 추천인 수).

《오래된 미래》(19)·《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12)·《월든》(7)·《에너지 대안을 찾아서》(6)·《무탄트》(5)·《작은 것이 아름답다》(5)·《엔트로피》(5)·《생태학의 담론》(5).

## 추천해 주신 분들

강은주 | 과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공경욱 | 대구환경운동연합 총무팀장  
 김경화 | 녹색연합 생태공동체팀 간사  
 김순남 | 녹색연합 시민참여팀 간사  
 김영락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김용웅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집행위원  
 김유미 | 광주전남녹색연합준비위원회 추진위원  
 김은경 | 과천환경운동연합 간사  
 김은주 | 《작은 것이 아름답다》 기자  
 김정수 | 환경운동연합 부설 시민환경연구소 선임연구원  
 김계남 | 녹색연합 사무처장  
 김종근 | 광주전남녹색연합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  
 김중렬 | 서울환경운동연합 회원팀장  
 김혜애 | 녹색연합 시민참여팀장  
 남호근 | 녹색연합 홍보팀장  
 마석훈 | 대구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팀장  
 마용운 | 환경운동연합 조사국 간사

민도홍 | 녹색연합 에너지팀 간사  
 민혜경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간사  
 박경화 | 《작은 것이 아름답다》 기자  
 박계성 | 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박용권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객원연구원  
 박일선 | 충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박정운 | 녹색연합 갯벌해양팀장  
 박정이 | 녹색연합 생명안전팀장  
 박현이 | 녹색연합충청본부 간사  
 박현철 | 환경운동연합 편집국 부장  
 변정석 | 춘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서재철 | 녹색연합 생태팀장  
 석광훈 | 녹색연합 에너지팀 차장  
 송수진 | 녹색연합 시민참여팀 간사  
 신근경 | 녹색연합 시민참여팀 간사  
 양수남 |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양희연 | 광주전남녹색연합준비위원회 추진위원  
 유미호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획실장  
 유종반 | 인천녹색연합 사무국장

육경숙 | 녹색연합 정책팀 차장  
 윤수영 | 녹색연합 홍보팀 차장  
 이세걸 | 대전환경운동연합 간사  
 이소영 | 녹색연합 생명안전팀 협력간사  
 이영웅 |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간사  
 이유진 | 녹색연합 생태팀 간사  
 이윤숙 |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 사무국장  
 이은정 | 대구환경운동연합 교육팀장  
 이재용 | 녹색연합 시민참여팀 간사  
 이정섭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집행위원  
 이태원 | 안산환경운동연합 간사  
 이현철 | 녹색연합 부설 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  
 이혜영 | 《작은 것이 아름답다》 편집장  
 이혜원 | 《작은 것이 아름답다》 기자  
 임영신 | 녹색연합 협력간사  
 임현지 | 경주환경운동연합 간사  
 장종진 | 녹색연합 홍보팀 간사  
 장지영 | 환경운동연합 생태팀 부장

정명희 | 녹색연합 홍보팀 간사  
 정수미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간사  
 조완철 | 《작은 것이 아름답다》 기자  
 조태경 | 녹색연합 생태팀 간사  
 지아가 | 녹색연합 생태공동체팀 간사  
 최성식 | 전주녹색연합 대표  
 최승국 | 녹색연합 에너지팀장  
 최예용 |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최재숙 | 환경운동연합 부설 시민환경정보센터 사무국장  
 최준호 | 환경운동연합 조사국 간사  
 한상민 | 녹색연합 홍보팀 간사  
 (이상 65명, 가나다순)

## 소설

### 에코토피아

어니스트 칼렌바크 지음 | 김석희 옮김

작중 주인공 웨스턴의 일기와 기사로 짜여진 독특한 형식의 소설. 에코토피아는 미연방에서 탈퇴해 독립한 국가의 이름. 에코토피아가 연방에서 탈퇴한 것은 인간과 환경이 완벽하게 조화된 생태적 이상향을 창조하기 위해서였다. 과학적 상상력이 돋보이는 이 소설은, 자연을 거역하고 파괴한 구세계의 종언과 미래의 인류생존에 대한 암시를 담은 문제작이다.

정신세계사/A5신/260면/4000원/1991

### 나무를 심은 사람

장 지오노 지음 | 김경은 옮김

짧은 내용이지만 긴 감동의 여운을 남기는 장 지오노의 대표작. 1929년 소설 《언덕》을 발표하면서 등단한 지은이는, 대지와 인간의 합일을 희구하는 작품을 줄곧 발표해왔다. 이 작품에서 지은이는 황무지에 푸른 숲을 남기고 평화로운 고독 속에 눈을 감는 엘제아르 부피에의 삶을 서정적으로 그렸다. 낮지만 웅숭깊은 목소리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작품이다.

두레/B6/136면/4800원/1995

### 무탄트

말로 모건 지음 | 김석희 옮김

미국 여의사의 호주 원주민사회 체험을 토대로 한 소설. 지은이는 호주 원주민 전체를 대변한 것이 아니라 한 부족을 엿봤다고 말한다. 무탄트는 돌연변이란 뜻으로 원주민들이 그녀에게 붙여준 이름. 마침내, 그녀는 부족의 전통에 따라 '떠돌아 다니는 해'라는 이름을 얻는다.

정신세계사/A5/256면/6500원/1995

## 생태사상가 전기

###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헬렌 니어링 지음 | 이석태 옮김

산업주의 체제와 그 문화의 야만성에 도전했던 스코트 니어링과 헬렌 니어링이 53년 동안 함께 한 '땅에 뿌리박은 삶'을 기록했다. 특히 지은이는 이 책에서 '자유로운 영혼' 스코트와 함께 보낸 삶과 평온하고도 위엄을 간직한 죽음을 통해 사랑과 삶, 죽음이 하나임을 보여준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삶'의 실체를 그린 감동적인 책이다.

보리/A5신/246면/6800원/1997

### 사티쉬 쿠마르

사티쉬 쿠마르 지음 | 서계인 옮김

인도 출신의 국제적인 평화운동가이며 녹색운동가인 지은이의 자전적 수행기. 이 책에는 특히 지은이가 열강의 핵무기 폐지를 위해 인도에서 미국까지 3만리 길을 걸었던 순례기가 자세히 기록돼 있어 눈길을 끈다. 지은이는 슈마허의 제자로 세계적인 녹색사상 연구기관인 슈마허 대학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한민사/A5신/342면/7000원/1997

## 교양 입문서

### 녹색평론선집 1

김종철 엮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1991년 11월 창간된 격월간 《녹색평론》의 창간사 첫 구절이다. '생명중심, 생태중심'을 내세운 이 잡지는 창간 이후 우리 사회에 만연된 생명파괴와 비인간화를 비판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천위대' 역할을 해왔다. 이 선집은 창간호부터 제9호까지 《녹색평론》에 실렸던 글 가운데 일부를 가려 뽑았다. 위기의 시대, 희망을 찾아나선 진정한 지성들을 만날 수 있다.

녹색평론사/A5신/320면/5000원/1993

### 이곳만은 지키자(상·하)

조홍섭·김경애 지음

1991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한겨레신문》에 매주 연재된 기획물을 엮은 책이다. '자연생태계 보전 긴급호소'라는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 새·꽃·물고기의 마지막 보금자리를 소개하며 환경보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환경부는 여기에 언급된 54곳을 생태계 모니터 지역으로 정했다.

한겨레신문사/B5/200면 내외/각 10,000원/1993

### 월든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지음 | 강승영 옮김

"나는 큰 즐거움을 가지고 《월든》을 읽었으며, 그로부터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 책의 가치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사회적 규약에 구속받지 않는 한 자유로운 영혼이 쓴 이 책은, 자연을 예찬하면서 문명사회를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검소하게 사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지은이의 소박하나 의미 있는 결론이다.

이레/A5신/384면/6800원/1993

### 봄의 침묵

레이첼 카슨 지음 | 정대수 옮김

봄이 왔는데 숲에서 새소리가 들리지 않고, 냇강에서 더 이상 물고기가 뛰놀지 않는다. 이 책은 이같은 '봄의 침묵'이 빠른 속도로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을 널리 알린 고전적인 저서다. 지은이가 심각한 자연훼손의 주범으로 지목한 것은 DDT. 1940년대 DDT가 개발되면서 미국은 해충구제를 위해 이 살충제를 남용했다. 결과는 자연환경의 엄청난 파괴. 구체적 실례를 통해 과학기술만능주의에 경종을 울린 빼어난 책이다.

넥서스/A5신/320면/6000원/1995

## 오래된 미래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지음 | 김종철 외 옮김

히말라야 고원에 자리잡은 라다크의 근대화 과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인류사회가 직면한 생태적 위기의 본질을 명료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 책이 파괴만을 그린 것은 아니다. 현대산업문명의 폭력성과 파괴성을 극복하기 위해 라다크인들이 벌였던 다양한 활동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상징성이 풍부한 책 제목이 많은 것을 시사한다.

녹색평론사/A5신/202면/5000원/1996

## 세밀화로 그린 보리어린이

### 식물도감 · 동물도감

도토리 기획

초등학교 전학년 전과목 교과서에서 뽑은 식물과 동물 각각 160가지를 세밀화를 곁들여 설명했다. 세밀화는 한 곳에 초점을 맞춘 사진과 달리 직접 눈으로 본 것 같은 느낌을 전한다. 식물도감은 식물의 온모습을 드러내며 잎맥과 꽃잎 같은 섬세한 정보를 생생히 전달한다. 동물도감의 그림은 대부분 실사했지만, 멸종 동물이나 세부묘사는 박제를 참고했다.

보리/A5신/각 368면/각 30,000원/1997 · 1998

## 간디의 물레

김종철 지음

《녹색평론》 발행인 김종철 교수의 산문집. 《녹색평론》과 《말》같은 지면에 실렸던 생태 관련 에세이를 수록했다. 책 펴내는 일의 불편한 심경을 토로한 머리말이 인상적이다. “이 기막힌 생태적 위기의 시대에 아까운 나무들을 대규모로 희생시키는 출판 행위를 줄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해온 잡지의 발행·편집자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을 낸다는 게 마음 편할 일일 수는 없다.”

녹색평론사/A5신/292면/7000원/1999

## 돌아갈 때가 되면 돌아가는 것이 '진보'다

천규석 지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진보가 아니라 돌아갈 때가 되면 돌아가는 것도 때로 급진”적인 것이 된다고 지은이

는 말한다. 대학졸업 후 귀농을 감행, 30년 넘게 농사를 지어온 그의 삶 자체가 이런 ‘진보론’의 증좌다. 또, 묘지로 인한 국토의 잠식을 막기 위해 전개되고 있는 ‘화장장려운동’을 보는 지은이의 시각이 독특하다. 그는 화장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실천문학사/A5신/278면/8000원/1999

## 동강 아리랑

진용선 지음

동강 유역 사람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담았다. 지은이가 1988년부터 개인적으로 조사한 내용과 1997년 국립민속박물관 영월댐 수몰지 유적조사 보고서를 쓰면서 정리한 내용을 수정·보완했다. 동강의 역사와 지명유래, 구전 설화와 민요, 의식생활, 세시풍속과 민속놀이 등을 다뤘다. 동강 유역의 선사 유적지도 소개했다.

수문출판사/A5신/350면/13,000원/1999

## 이론서

## 작은 것이 아름답다

E.F. 슈마허 지음 | 김진욱 옮김

물질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현대문명을 비판하고 있는 ‘오늘의 고전’. 지은이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열중한 나머지 현대인은 자원을 남용해 자연을 파괴하는 생산체제와 인간을 불구로 만드는 사회를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한다. 대안으로 ‘중간기술’과 ‘새로운 조직’을 내세우고 있는 지은이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물질적 가치에 “제일의적(第一義的) 지위가 아니라 종속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생활양식을 엮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범우사/A5/316면/4500원/1986

## 환경의 이해

시민환경연구소 엮음

환경운동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인식 지평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만든 책. ‘환경과 자연’ ‘환경과 사회인식’ ‘환경과 사회생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등으로 구성. 송상용 교수의 <휴머니즘과 환경위기>를 비롯, 15편의 글이 실려 있다. 비교적 초창기 환경운동 진영의 인식을 보여준다.

환경운동연합출판부/A5신/368면/7000원/1993

## 녹색세계사(1·2)

클라이브 폰팅 지음 | 이진아 옮김

세계사를 생태학적 시각으로 해석, 조명했다. 수천년에 걸쳐 이뤄진 생산양식의 변천과 생태계의 관계, 국제역학의 변모와 자원이용 양식의 변화,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기술과 생태계의 역학관계 등에 초점을 맞춰 인류사를 녹색문명사로 파악했다. 특히, 제1장 ‘이스터섬의 교훈’은 인류를 향한 준엄한 경고다.

심지/A5신/296면 내외/각 7500원/1995

## 살아남기

반다나 시바 지음 | 강수영 옮김

근대과학의 발전이 무서운 속도로 파괴하고 있는 자연환경, 특히 개발도상국의 여성들을 보호하는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인도 출신 여성환경운동가의 저서. 지은이는 중립성을 띤 듯한 과학과 개발이 사실은 근대 서구 가부장제의 특별한 기획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밝히고 있다. 생태파괴를 막고 여성의 종속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적 원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솔/A5신/342면/9500원/1997

## 도둑맞은 미래

테오 콜본 외 지음 | 권복규 옮김

이른바 ‘환경호르몬’의 실체를 처음으로 파헤친 책. 비전통적 방식으로 합성화학물질과 그것의 안정성 여부, 위험평가방식 등을 다뤘다. 문명의 구조를 바꿔

야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에너지와 물자를 덜 소비하는 것을 대안으로 내세운다. 그렇지 않다면, 전인류의 80%가 불임이 될 거라는 끔찍한 전망을 내놨다.

사이언스북스/A5신/366면/10,000원/1997

## 시화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한경구 외 지음

시화호 조성사업이 주변환경과 지역 주민들의 삶에 끼친 영향을 문화인류학적 시각과 방법으로 살폈다.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개발의 어두운 뒷면을 보여 주고, 진정 보존해야 할 가치를 되새긴다. 시화호를 '죽음의 호수'로 몰고간 요인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모순에 있다고 진단하고, 주민들의 그릇된 인식에도 책임의 일단을 지운다.

술/A5/256면/6500원/1998

## 사회생태주의란 무엇인가

머레이 북친 지음 | 박홍규 옮김

젊은 시절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했으나 그 권위적인 성격에 환멸을 느끼고 아니키즘과 환경운동에 전념했던 지은이의 독특한 이력이 녹아 있는 책. '자연과의 조화로운 균형확립'이 인류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키워드라 주장하면서, 사회적 비판과 변혁에 뿌리내리지 않는 생태주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민음사/A5신/326면/12,000원/1998

## 에너지 대안을 찾아서

이필렬 지음

원자력 발전과 에너지 문제에 관해 쓴 논문과 에세이를 모았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단순한 주장이나 논의에서 벗어나 문제를 다각적으로 고찰했다. 원자력을 넘어선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의 가능성도 모색했다. 지은이는 원자력 발전의 문제는 다른 기술적 산물과 달리 그 위험을 사람이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있다고 본다.

창작과비평사/A5신/272면/9000원/1999

## 생태학의 담론

문순홍 편저

서구와 국내 학자들의 생태학 담론을 엮었다. 생태학 담론을 일별하면서, 새로운 생태 패러다임의 도출을 시도했다. 근본생태론자 아노 네스, 사회생태론자 머레이 북친, 근본생태론과 사회생태론을 종합한 팀 록의 견해가 담겨 있다. 김지하의 생명론도 살폈다.

술/A5신/410면/15,000원/1999

## 바이오테크 시대

제레미 리프킨 지음 | 전영택 · 전병기 옮김

유전공학과 컴퓨터 기술의 결합을 통해 급속히 진행 중인 생명공학시대로의 전환을 다뤘다. 지은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두가지다. 첫째, 생명공학은 이미 강력한 실체로 떠올랐고, 향후 수십년간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20여년 전에 견한 기술들이 실험실에서 나와 상용화된 '새로운 시대'는 위험과 희망을 동시에 맞고 있어서다.

민음사/A5신/428면/12,000원/1999

## 환경의 세기

에른스트 울리히 폰 바이츠제커 지음 | 권정임 · 박진희 옮김

21세기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화두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래 경제의 새로운 상(相)으로 순환경제를 제시했다. 하수도가 없는 집, 태양열 단지, 유기 쓰레기에서 전기를 얻는 토탈 모델 등이 순환경제를 구성한다. 부록으로 유럽만의 편협한 시각을 탈피하기 위해 일본인 전문가의 논문도 실었다.

생각의나무/A5신/330면/12,000원/1999

## 20세기 딜고 뛰어넘기

환경운동연합 21세기위원회 편

지난해 2월 환경운동연합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성된 21세기위원회의 첫번째 성과물. 생태적 관점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제반 영역을 탐구했다. 위원회는 여섯 모듈의 분과로 나뉘어 탐구활동을 전개했다. 제1모듈은 총론을 맡았고, 나머지 모듈은 정치·경제·문화·삶·환경 분야를 담당했다. 가장 최

신의 환경·생태 담론을 소개했다.

나남출판/B5/608면/15,000원/2000

## 자연과 지식의 약탈자들

반다나 시바 지음 | 한재각 외 옮김

'여성·식물·육체'가 자신의 새로운 식민지로 전략했다면서, '생물 해적질'에 대한 저항은 "궁극적으로 생명 그 자체에 대한 식민화, 다시 말해 자연과 관련된 비서구적 전통의 미래, 나아가 진화의 미래를 식민화하는 데 대한 저항"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은 각별히 생명공학을 앞세운 초국적 기업들의 '약탈'을 고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유전공학의 발전이 물고 울 전지구적 위협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당대/A5신/236면/7500원/2000

## 생태적 삶을 추구하는 여성

장희익 외 지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산하 사단법인 한국교회연구소 주최로 1998년 9월부터 두달간 열린 세미나에서 행해진 강연을 책으로 엮었다. 강연마다 생태학적 삶의 소중함을 열정적으로 설교한 점이 돋보인다. 기독교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생태사상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장희익 교수의 <현대 과학과 우주 생명>을 비롯, 11편의 글이 실려 있다.

내일을여는책/A5신/224면/6000원/2000

## 엔트로피

제레미 리프킨 지음

제목이 새로운 세계관을 지칭하기도 했던 책이다. 엔트로피는 제2열역학법칙에서 따온 말이다. 열역학 제1법칙은 에너지보존의 법칙을 말하고, 제2법칙은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엔트로피가 가용에너지를 초과하는 상황을 경고한 다음, 엔트로피법칙에 따른 엄청난 결과를 직시하게 한다.

세종연구원 2000년 5월 발간 예정